



현대차, 유성기업 이번엔 끝장을 보자!

한 동지를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동지를 잃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웠던 동지를 잃었습니다. 유성영동지회 故 한광호 열사가 3월 17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제든 조합원들이 원하면 대의원을 맡아 앞장섰던 동지였습니다. 사측의 악랄한 탄압이 들어와도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며 투쟁하던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동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죽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명백한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살인입니다. 현대차가 기획하고, 창조컨설팅이 시나리오를 쓰고, 유성기업이 주연을 맡았던 노조파괴 막장 드라마의 결과입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노조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깊숙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현대차 임원이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조합원 숫자까지 파악하며 직접 목표수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 못하면 불려서 혼내기도 했습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현대차의 작품입니다.

이젠 끝장을 봐야 합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조파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우울증을 불러오고 결국엔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불러왔습니다. 노조파괴를 지금 당장 끝내지 못하면 똑같은 희생을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5년을 싸웠습니다.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열사의 희생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는 현대차, 유성기업을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謹 故한광호 열사 弔



1974년 8월 27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리 출생
1995년 12월 10일
유성기업(주) 영동공장 입사
1999년 ~ 2000년
대의원
2012년 10월 ~ 2013년 9월
대의원
2013년 10월 ~ 2014년 9월
대의원
2016년 3월 17일 06시 40분경
목을 매어 자결

* 열사투쟁 *

- 한광호 열사 빈소 방문
충북 영동병원 장례식장 202호
- 지회별 분향소 설치
- 현수막 연대
“한광호 열사 정신계승” 현수막을 유성영동지회에 전달
-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
3/21(월)~23(수) 18시 30분
충북 영동 삼일공원